

Michael T. Martin 주교님 강론 말씀 (2025. 11. 견진성사)

오늘 우리는 이곳에 4 가지 특별한 축하를 하기위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인 주일(일요일) 미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을 기리는 위령의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히 할 준비가 된 이 은총가득한 분들을 위한 견진성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는 첫 시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위에 이야기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 축하하는 네가지 중, 분명하게 가장 덜 중요한 것은 ‘저자신’ 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주일 미사이지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물론 “가야 한다”는 의무감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함께 있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제 7 일을 ‘쉼의 날’로 삼기 위해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쉼.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와닿습니까? 속도를 늦추고, 여기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세요.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께 경배드리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1 월 2 일에는, 오늘 한국에서는 — 아마 이미 지나갔죠, 어제 — 위령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령의 날을 지내며,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여러분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다음 달이면 86 세가 되세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세상에, 30 년 전이네요. 저는 아버지께 자주 기도합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제가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에 대해 “아버지, 예수님께 제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 주세요.” 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의 삶에 아직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이 ‘죽은 이를 위한 날’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을 떠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합시다.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견진성사를 받는 이 은총가득한 후보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되세요.

그렇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한가지는,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와 별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한 마법의 처방 같은 건 제게 없습니다. (웃으며) 사실 저도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이 성사(견진성사)는 그런 걸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성사는 오늘 여기 있는, 믿음 안에서 견진을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견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라고 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 “예, 성령님, 오소서.” 하고 다시 응답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준비됐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거나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 위에 내려오소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 진리의 산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머리에 이런 걸(주교관) 쓰고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다리고 지켜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제 1 독서는 욥기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말이에요. “왜 하필 욥이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욥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불행의 대표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욥 같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안쓰럽게 느낍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그건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조차도 쓰실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 정말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 인생에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시련, 힘든 시기를 겪지 않고서는 인생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나의 하느님을 찬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상황도 하느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새롭게 부활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독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의 첫 부분에는 아주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지내고 있는 이 ‘거룩한 해’, ‘희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건진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붙드는 희망이며,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 더 큰 희망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행복선언(팔복, The Beatitudes)’ 말입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신부님이 다른 복음을 꺼내서 바꿔 읽으신 건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 ‘팔복’을 들었죠? 네

지금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십계명을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아침에 모인 신자들이 평균적으로 10 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 십계명을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럼 평균적으로 일곱이나 여덟 개 정도는 쓰겠죠, 한두 개쯤은 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다른 종이를 나눠주고 “팔복을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팔복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복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다른 누구도 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메시지도 아니었고, 힌두교나 불교의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마태오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일부로, 바로 그 설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팔복 안에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오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요.

건진성사를 받는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 복음을 매일 탐구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신 메시지이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금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은요.

‘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팔복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나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누가 여기 있는지 보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걷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걷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여러분을 이끄실지 조금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큰 곳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생각하면, 크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단, 우리가 “예”라고 응답한다면 말입니다. “예, 주님.”

이 공동체의 “예”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기를,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예”가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락방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머물렀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너무도 강하게 머무셨기에,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 안에만 머물러 “여기 있자”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의 학교로, 일터로, 이웃으로, 마트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야 합니다. 오! 온라인 세상, 바로 소셜 미디어 속에도 성령을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성령을 담고 있는지, 성령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 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을 가정 안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 집은 성령으로 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서, 세상사람들에게 팔복이 단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진리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 성사를 함께 거행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하느님께 찬미드립니다.

제가 당신들과 처음 함께 한 이날에, 일요일의 거룩함 미사를 했던 이날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기억했던 이날에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을 우리모두 기뻐 맞이한 이날에, 이제 이날의 은총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향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아멘

